



호텔, 레저 애널리스트 박성호입니다.

(02)3770-3476 sungho.park@tongyang.co.kr



# 모두투어 (080160)

## 입춘(立春)이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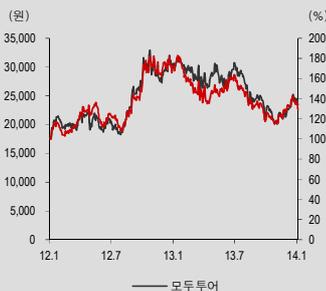
투자 의견: BUY (M)  
 목표주가: 30,000원 (M)

### 호텔/레저

주가	23,450원
자본금	63억원
시가총액	2,955억원
주당순자산	8,177원
부채비율	87.00%
총발행주식수	12,600,00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24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08,673주
52주 고	31,900원
52주 저	20,100원
외인지분율	18.17%
주요주주	우종웅 외 6인 17.85%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3.3	1.7	(21.3)
상대	(3.2)	2.3	(22.7)
절대(달러환산)	2.0	0.0	(21.9)



자료: Datastream



### Why This Report

2013년 11~12 월에는 해외여행 업황이 무척 좋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의 4Q13 실적도 매우 부진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11 월 2 만원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해외여행 업황이 4Q13 을 바닥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2014년 연간으로 연휴가 많은 편이라 이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비유하자면, 엄동설한(嚴冬雪寒)을 헤치고 나와 입춘(立春)을 기다리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Investment Point

#### 4Q13 Review : 엄동설한(嚴冬雪寒)

- ▶ 4Q13 잠정실적(별도기준)은 매출액 340억원(+4% YoY), 영업이익 37억원(-18% YoY), 순이익 34억원(+0.2% YoY)으로 부진. 일본 방사능오염 이슈, 필리핀지역 태풍피해, 태국 반정부 시위 등의 악재들이 중첩된 결과로 평가
- ▶ 1Q14 예상실적(별도기준)은 매출액 340억원(+12% YoY), 영업이익 75억원(+34% YoY). 전반적인 해외여행 업황은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음

#### 결론 :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 동사의 주가는 원/달러 환율하락 구간에서 상승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1) 국내 해외여행 업황이 4Q13을 바닥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2) 2Q14~4Q14의 경우 연휴(장경다리 연휴 포함)가 전년대비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
- ▶ 투자포인트 : 1) 영업레버리지 효과의 재가동, 2) 자회사 흑자 영업전환, 3) 낮은 Valuation

###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30,000원 유지

- 목표주가는 2014E EPS 1,707원에 Target PER 17.5배 적용
- 해외여행 업황은 4Q13을 바닥으로 회복국면 진입

###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단위: 억원, 원, %, 배)

결산(12월)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매출액	1,250	1,379	1,465	1,706	1,836
매출액증가율	2.6	10.3	6.3	16.5	7.6
영업이익	162	213	153	261	307
영업이익률	13.0	15.4	10.4	15.3	16.7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136	176	152	215	252
지배주주 귀속 EPS	1,613	1,395	1,203	1,707	1,998
증가율	-8.8	-13.5	-13.8	41.9	17.0
PER	20.8	18.9	19.5	13.7	11.7
PBR	3.5	3.6	2.9	2.5	2.1
EV/EBITDA	12.0	8.8	12.5	7.6	6.3
ROA	10.3	12.4	9.6	12.0	12.5
ROE	20.0	22.7	17.6	22.1	21.8

주: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매비 / 자료: 동양증권

## 4Q13 Review : 엄동설한(嚴冬雪寒)

4Q13 실적 :  
여행업황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역성장

동사의 4Q13 잠정실적은 일본 방사능오염 이슈, 필리핀지역 태풍피해, 태국 반정부 시위 등의 악재들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4Q13 실적(별도기준)은 매출액 340억원(+4% YoY), 영업이익 37억원(-18% YoY), 순이익 34억원(+0.2% YoY)을 기록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2개 분기만에 재차 역성장을 기록했다.

동사의 4Q13 해외송객수는 32.2만명(+4.4% YoY)으로 한국 전체 출국자 증가율(+4.5% YoY)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해외 패키지송객수는 22.3만명(+4.4% YoY)을 기록했다. 전체 수탁금은 2,884억원(+2.7% YoY)으로 소폭의 증가에 그쳤고, 이 중에서 해외 패키지 수탁금은 2,223억원(+1.3% YoY)으로 사실상 제로성장 수준이었다. 이렇듯, 동사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송객수와 수탁금 성장이 부진했던 이유는 1)일본항 송객수가 전년도 기고효과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13년 10월 -41% YoY → 11월 -67% YoY → 12월 -45% YoY 으로 급감했고, 2)동남아항 송객도 필리핀 및 태국발 악재로 인해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3)2013년 8~10월의 연휴효과로 인해 11~12월의 해외여행 수요가 일부 분산됐고, 4)2013년 12월은 전년동월과 달리 연휴효과가 없었고 초/중/고교의 겨울방학도 1주일 가량 늦춰지면서 겨울휴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1] 4Q13P 실적결과 및 컨센서스 비교

(단위: 억원, %, %p)

	4Q13P	4Q12	YoY	3Q13	QoQ	당사 예상치	과리율(%)	컨센서스	과리율(%)
매출액	340	326	4.3	433	-21.4	334	1.8	333	2.1
영업이익	37	45	-18.4	88	-58.0	36	2.7	38	-3.6
순이익	34	34	0.2	74	-54.2	32	6.3	32	6.8
영업이익률	10.9	13.9	-3.0	20.4	-9.5	10.8	0.1	11.5	-0.6
순이익률	9.9	10.3	-0.4	17.0	-7.1	9.5	1.0	9.5	0.4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 1Q14 Preview : 입춘(立春)이 다가온다

1Q14E 매출액 340억원  
(+12% YoY)  
영업이익 75억원  
(+34% YoY)

동사의 1Q14 예상실적(별도기준)은 매출액 340억원(+12% YoY), 영업이익 75억원(+34% YoY)을 기록해 2013년과 달리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 송객수는 28.7만명(+12% YoY)을 기록해 두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의 1월 8일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예약률은 +1.9%로 약세를 기록 중에 있지만, 2월 예약률은 동남아와 미주를 제외한 전지역향 예약증가로 인해 +23.7%를 나타내고 있다. 동남아는 태국 반정부 시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필리핀 태풍효과는 거의 소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도 1~2월 예약률 지표가 (+)로 나타나고 있어 방사능 효과보다 엔저효과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해외여행 업황은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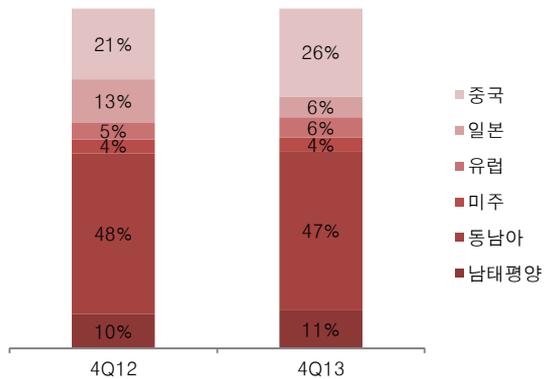
[표2] 모두투어 4Q13P 영업이익의 37억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

(단위: 억원)

	1Q13	2Q13	3Q13	4Q13P	1Q14E	2Q14E	3Q14E	4Q14E	2012	2013	2014E
한국 출국자(만명)	372	350	402	360	410	389	446	403	1,374	1,485	1,648
모두 패키지승객(만명)	26	22	25	22	29	25	28	26	93	94	107
모두 항공권승객(만명)	10	9	10	10	11	10	11	11	41	39	44
모두투어 M/S	9.6%	8.7%	8.7%	8.9%	9.7%	8.9%	8.8%	9.2%	9.7%	9.0%	9.1%
<b>수탁금</b>	<b>3,239</b>	<b>2,795</b>	<b>3,452</b>	<b>2,884</b>	<b>3,532</b>	<b>3,126</b>	<b>3,851</b>	<b>3,341</b>	<b>11,948</b>	<b>12,371</b>	<b>13,850</b>
매출전환율(패키지)	11.8%	11.8%	14.2%	12.9%	11.8%	11.4%	13.5%	12.7%	12.2%	12.7%	12.4%
매출전환율(발권)	4.5%	3.0%	3.2%	3.9%	4.5%	4.5%	4.5%	4.5%	4.5%	3.6%	4.5%
<b>영업수익</b>	<b>359</b>	<b>299</b>	<b>433</b>	<b>340</b>	<b>401</b>	<b>335</b>	<b>470</b>	<b>392</b>	<b>1,334</b>	<b>1,431</b>	<b>1,598</b>
항공권대매수익	29	18	23	26	32	30	36	33	119	97	131
국제관광알선수익	305	258	387	287	334	280	411	330	1,132	1,237	1,355
기타알선수익	25	16	14	18	27	17	15	21	69	73	80
기타수익	7	7	9	9	8	8	8	8	14	31	31
영업비용	303	281	345	303	325	301	373	351	1,122	1,232	1,351
급여 및 성과급	101	100	104	99	110	108	116	121	385	403	454
광고선전비	11	14	13	20	21	18	23	34	47	59	96
여행비지급수수료	127	106	156	120	136	114	160	133	445	509	543
지급수수료	27	23	33	25	8	7	9	8	31	107	32
기타	36	38	40	40	50	54	65	55	214	153	225
<b>영업이익</b>	<b>56</b>	<b>18</b>	<b>88</b>	<b>37</b>	<b>75</b>	<b>34</b>	<b>97</b>	<b>41</b>	<b>212</b>	<b>190</b>	<b>248</b>
OPM	15.7%	6.0%	20.4%	10.9%	18.8%	10.2%	20.7%	10.4%	15.9%	13.9%	15.5%
<b>순이익</b>	<b>47</b>	<b>19</b>	<b>74</b>	<b>34</b>	<b>63</b>	<b>32</b>	<b>78</b>	<b>35</b>	<b>173</b>	<b>174</b>	<b>208</b>
NIM	13.2%	6.4%	17.0%	9.9%	15.7%	9.5%	16.6%	9.0%	12.9%	12.2%	13.0%
<b>성장성(YoY)</b>											
수탁금	5%	0%	6%	3%	9%	12%	12%	16%	7%	4%	12%
매출액	10%	4%	10%	4%	12%	12%	9%	15%	9%	7%	12%
영업이익	-5%	-37%	15%	-18%	34%	89%	10%	10%	32%	-6%	24%
순이익	-6%	-18%	13%	0%	32%	66%	6%	4%	30%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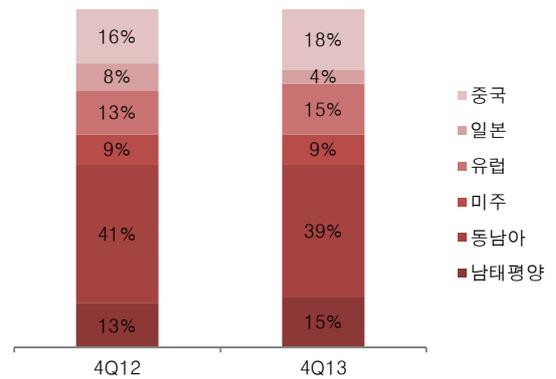
주: 동 추정치는 IFRS-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모두투어 목적지별 인원비중



자료: 모두투어

[그림2] 모두투어 목적지별 매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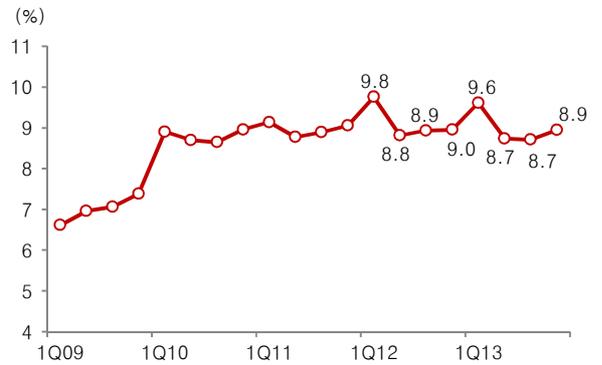
자료: 모두투어

[그림3] 모두투어 승객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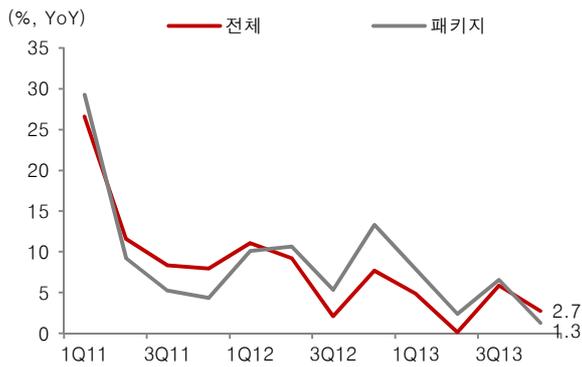
자료: 모두투어,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모두투어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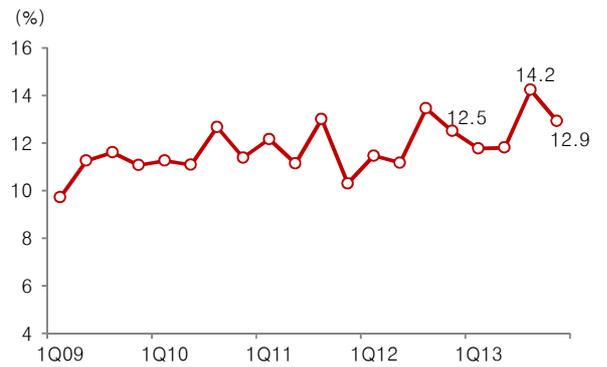
자료: 모두투어,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모두투어 수탁금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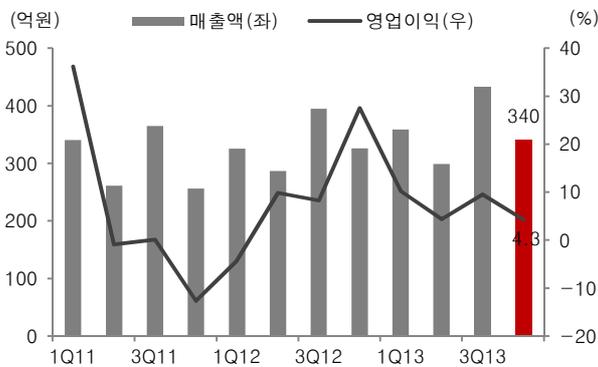
자료: 모두투어,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모두투어 패키지 매출전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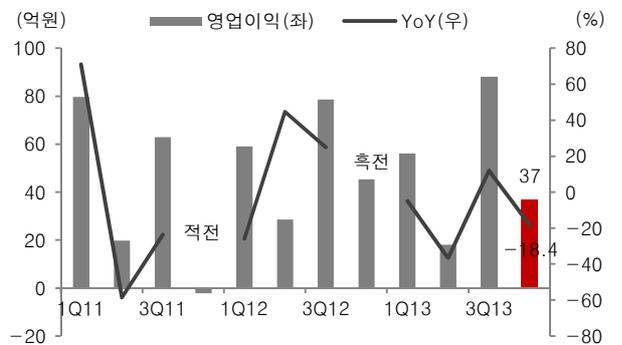
자료: 모두투어,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모두투어 본사 매출액 추이



자료: 모두투어,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모두투어 본사 영업이익 추이



자료: 모두투어,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 결론 :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만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만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4E EPS 1,707원에 Target PER 17.5배를 적용한 수치이다. 동사의 주가는 원/달러 환율하락 구간에서 상승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1) 국내 해외여행 업황이 4Q13을 바닥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2) 2Q14~4Q14의 경우 연휴(징검다리 연휴 포함)가 전년대비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된다.[표4 참조]

동사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1)영업레버리지 효과의 재가동과 2)자회사 흑자 영업전환, 3)낮은 Valuation 으로 정리할 수 있다.

투자포인트 (1):  
정상적 영업레버리지  
효과 발생

**첫째, 2014년에는 정상적인 영업레버리지 효과의 발생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먼저, 전년도에 시행된 대리점 불륜인센티브 정책은 2013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급수수료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동 효과는 광고선전비의 증가로 상쇄되게 된다. 4Q14로 예정된 모두투어 박람회 개최로 인해 2014년 연간으로 광고선전비가 35~40억원 가량 지출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는 비용단의 특이사항이 없어 1Q14부터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투자포인트 (2):  
자회사 흑자전환

**둘째, 2014년 하반기에는 자회사 모두투어인터내셔널주의 흑자영업 전환이 기대된다.** 중국 인바운드 영업은 여유법 시행 전만 해도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로부터의 지상비 수취가 없어 카지노, 면세점, 기타 쇼핑물로부터의 알선수수료로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였다. 동 구조는 여유법 시행 이후, 중국 여행사로부터 여행원가의 약 80%를 지상비로 보장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과거 대비 쇼핑횟수는 제한되지만, 여전히 면세점 쇼핑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가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모객인원만 정상화될 경우, 흑자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투자포인트 (3):  
밸류에이션 저평가

**셋째, 동사의 2014E PER 은 13.7배에 불과해 저평가 국면에 있다.** 최근 자유여행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인터파크(주)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M/S(항공권 취급기준)를 6.6%까지 상승시키면서 모두투어와의 M/S 격차를 2.0%p 차이로 좁힌 상태이다. 향후, 자유여행의 상대적 강세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사의 Valuation 에 Premium 을 부여할 순 없겠지만, 동사의 주가가 역사적으로 12M Forward PER 기준으로 10~20배 사이에서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Valuation 은 부담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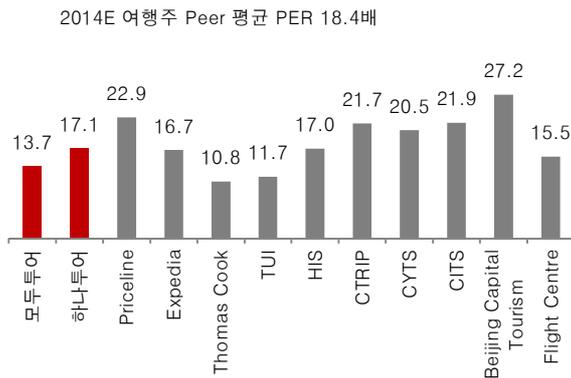
[표3] 여행업 Peer Valuation

(단위: 억원)

	2012			2013E			2014E		
	PER	PBR	ROE	PER	PBR	ROE	PER	PBR	ROE
모두투어	18.9	3.6	22.7	19.5	2.9	17.6	13.7	2.5	22.1
하나투어	20.1	4.2	25.3	22.0	4.0	19.7	17.1	3.6	23.4
<b>[해외 Peer]</b>									
Priceline	21.8	11.1	44.2	28.9	9.4	37.5	22.9	7.0	33.1
Expedia	29.8	4.0	8.5	19.6	4.0	17.1	16.7	4.0	20.0
Thomas Cook Group	-	5.9	-81.9	15.9	4.4	27.3	10.8	3.3	34.5
TUI Travel	23.6	3.1	12.0	13.1	2.9	23.0	11.7	2.6	23.7
HIS	9.9	2.0	14.3	19.3	2.0	11.7	17.0	1.8	11.1
CTRIP	28.4	3.8	9.4	26.5	4.9	16.1	21.7	4.2	16.7
China CYTS Tours	22.7	1.9	11.3	24.4	2.6	10.4	20.5	2.2	10.9
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24.3	4.5	21.0	25.8	4.3	19.2	21.9	3.6	18.3
Beijing Capital Tourism	23.7	3.2	11.0	31.5	3.5	10.6	27.2	3.4	11.7
Flight Centre	13.6	5.1	25.4	17.2	4.0	24.8	15.5	3.6	24.6

주: 모두투어, 하나투어는 당사 추정치, 기타 Peer 들은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자료: Bloomberg,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2014E 글로벌 여행주 Peer PER 비교



자료: Bloomberg,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모두투어, 12M Fwd PER 추이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wise,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표4] 2012~14년 월별 휴일 및 연휴 비교

	2012년	2013년	2014년
1월	설연휴(21~24일, 토요일화)	-	신정(1일, 수) 설연휴(30일~2월 2일, 목금토일)
2월	-	설연휴(9~11일, 토요일)	-
3월	삼일절 징검다리연휴(1일, 3~4일, 목토일)	삼일절연휴(1~3일, 금토일)	-
4월	국회의원 선거(11일, 수)	-	-
5월	석가탄신일연휴(26~28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연휴(17~19일, 금토일)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연휴(3~6일, 토요일화)
6월	현충일(6일, 수)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6일, 8~9일, 목토일)	지방선거/현충일 징검다리연휴(4일, 6~8일, 수금토일)
7월	-	-	-
8월	광복절(15일, 수)	광복절 징검다리연휴(15일, 17~18일, 목토일)	광복절연휴(15~17일, 금토일)
9월	추석연휴(29일~10월 1일, 토요일)	추석연휴(18~22일, 수목금토일)	추석연휴(6~10일, 토요일화수)
10월	개천절(3일, 수)	개천절 징검다리연휴(3일, 5~6일, 목토일) 한글날(9일, 수)	개천절연휴(3~5일, 금토일) 한글날 징검다리연휴(9일, 11~12일, 목토일)
11월	-	-	-
12월	대통령선거(19일, 수) 크리스마스 징검다리연휴(22~23일, 25일, 토요일) 신정 징검다리 연휴(29~30일, 1월 1일, 토요일화)	크리스마스(25일, 수)	크리스마스 징검다리연휴(25일, 27~28일, 목토일)
휴일수	24일	25일	30일
비고	9월 추석연휴와 10월 개천절은 징검다리로 연결되어 있음	2~3월, 6월, 8~10월은 전년대비 연휴 및 징검다리 연휴가 많음	1월, 5~6월, 8월, 10월, 12월은 전년대비 연휴 및 징검다리 연휴가 많음

주: 휴일수는 평일 휴일과 주말 연휴인 경우를 합산. 일반 주말은 휴일에서 제외

공휴일 중에서 주말과 겹치는 경우는 휴일에서 제외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모두투어 (08016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결산(12월)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매출액	1,250	1,379	1,465	1,706	1,836
매출원가	0	12	15	19	21
매출총이익	1,250	1,367	1,450	1,688	1,815
판매비	1,088	1,155	1,297	1,427	1,508
영업이익	162	213	153	261	307
EBITDA	173	226	165	272	316
영업외손익	29	17	36	17	19
외환관련손익	6	0	-3	0	0
이자손익	23	20	18	17	19
관계기업관련손익	0	1	1	0	0
기타	0	-4	20	0	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91	230	189	278	326
법인세비용	53	54	48	67	79
계속사업순손익	138	176	141	211	247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38	176	141	211	247
지배지분순이익	136	176	152	215	252
포괄순이익	133	179	137	210	246
지배지분포괄이익	131	178	153	264	309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결산(12월)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유동자산	1,117	1,155	1,270	1,367	1,489
현금및현금성자산	282	418	464	515	61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91	276	248	294	315
재고자산	0	1	0	1	1
비유동자산	239	333	412	523	635
유형자산	14	102	100	91	84
관계기업등 지분관련자산	149	130	191	312	434
기타투자자산	9	30	27	27	27
자산총계	1,356	1,488	1,682	1,889	2,124
유동부채	523	549	649	670	69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53	340	445	445	445
단기차입금	0	0	13	34	55
유동성장기부채	1	1	2	2	2
비유동부채	99	97	134	154	174
장기차입금	2	2	12	32	52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621	646	783	824	865
지배지분	719	830	891	1,057	1,248
자본금	42	63	63	63	63
자본잉여금	305	281	281	281	281
이익잉여금	453	593	686	853	1,045
비지배지분	16	12	9	9	11
자산총계	735	842	899	1,066	1,259
순차입금	-767	-786	-891	-901	-961
총차입금	11	12	41	82	123

결산(12월)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영업활동 현금흐름	152	222	319	319	378
당기순이익	138	176	141	211	247
감가상각비	10	11	10	9	8
외환손익	0	4	3	0	0
종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1	-1	0	0
자산부채의 증감	-18	-14	124	42	66
기타현금흐름	23	45	43	57	57
투자활동 현금흐름	-113	-11	-174	-144	-144
투자자산	-144	-7	-62	-121	-121
유형자산 증가 (CAPEX)	-10	-99	-7	0	0
유형자산 감소	1	0	0	0	0
기타현금흐름	40	95	-105	-22	-22
재무활동 현금흐름	-46	-74	-63	-7	-19
단기차입금	0	-7	13	21	21
사채 및 장기차입금	2	0	12	20	20
자본	0	0	0	0	0
현금배당	-48	-40	-55	-48	-60
기타현금흐름	0	-26	-32	0	0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36	-117	-114
현금의 증감	-7	136	47	51	101
기초 현금	289	282	418	464	515
기말 현금	282	418	464	515	617
NOPLAT	162	213	153	261	307
FCF	100	64	243	250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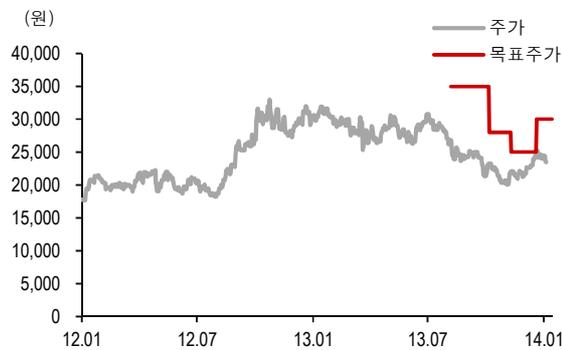
자료: 동양증권

-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 2. PER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 4. 2010년 이전은 K-GAAP 기준, 2011년 이후는 K-IFRS 기준임

결산(12월)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EPS	1,613	1,395	1,203	1,707	1,998
BPS	9,517	7,438	8,177	9,495	11,015
EBITDAPS	2,055	1,794	1,313	2,157	2,507
SPS	14,880	10,944	11,628	13,541	14,571
DPS	500	450	400	500	550
PER	20.8	18.9	19.5	13.7	11.7
PBR	3.5	3.6	2.9	2.5	2.1
EV/EBITDA	12.0	8.8	12.5	7.6	6.3
PSR	2.3	2.4	2.0	1.7	1.6

결산(12월)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매출액 증가율 (%)	2.6	10.3	6.3	16.5	7.6
영업이익 증가율 (%)	0.5	31.6	-28.1	70.8	17.5
지배순이익 증가율 (%)	-8.8	29.7	-13.8	41.9	17.0
매출총이익률 (%)	100.0	99.2	99.0	98.9	98.8
영업이익률 (%)	12.9	15.4	10.4	15.3	16.7
지배순이익률 (%)	10.8	12.7	10.3	12.6	13.7
EBITDA 마진 (%)	13.8	16.4	11.3	15.9	17.2
ROIC	-229.9	659.8	-214.2	-117.8	-161.2
ROA	10.3	12.4	9.6	12.0	12.5
ROE	20.0	22.7	17.6	22.1	21.8
부채비율 (%)	84.5	76.7	87.0	77.3	68.7
순차입금/자기자본 (%)	-106.7	-94.7	-100.1	-85.2	-77.0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595.2	371.5	731.0	804.4	588.6

모두투어 (0801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2014-01-24	BUY	30,000
2014-01-08	BUY	30,000
2013-11-29	HOLD	25,000
2013-10-25	BUY	28,000
2013-08-26	BUY	35,000

자료: 동양증권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박성호)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Buy, Hold, Sell)와 위험도 2단계(H:High, L:Low)로 구분
- Buy : 10%이상(Low)/20%이상(High), Hold: -10~10%(Low)/-20%~20%(High), Sell: -10이상(Low)/-20%이상(High)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08년 2월19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5단계(Strong Buy, Buy, MarketPerform, UnderPerform, Sell)에서 3단계(Buy, Hold, Sell)와 리스크 2단계(High, Low)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